SURVIVING TRADITIONS PROJECT · ISTR 2026 LISBON

생존전통: 감각의 고고학

Surviving Traditions: An Archaeology of the Senses

제주 · 류큐/오키나와 · 대만 원주민 공동체의 체화된 지식 전승 비교 연구
Embodied Memory Transmission in Jeju, Ryukyu/Okinawa, and Taiwan Indigenous Communities

최샘이 (SEMI CHOI)
성균관대학교 미래인문학소셜앙트레프래너십 융합전공 박사과정 · kccf.rpt@gmail.com
오민정 (Min Jung Oh) · 한국교원대학교 독어교육과
최문영 (Moon Young Choi)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협업지원사업(4COP) 지원
ISTR —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제17차 국제학술대회 (리스본) · 포스터 발표
Track: Emerging Areas of Research and Practice in Nonprofit and Third Sector

RESEARCH QUESTION · 핵심 연구 질문

무형유산 공동체는 근대화, 식민 통치, 국가 제도, 문화유산 체계, 관광, 세대 변화 속에서 몸의 지식과 감각의 기억을 어떻게 다시 조직하며 살아남아 왔는가?

◉ RATIONALE & BACKGROUND

이 연구가 출발한 문제의식

본 연구는 제주 사회적기업의 관계적 가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출발했다. 그 과정에서 제3섹터 조직과 전통예술 공동체가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제도적 환경 속에서 자율성을 지키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넘기려 한다. 그런데 세대를 건너 전승되는 핵심 자원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체화된 지식(embodied knowledge)과 실천이다 — 그리고 그것은 문서에 담기지 않는다.

> *무형유산 보존 정책으로 살아남은 무형유산들에게 "보존됐다"라는 말이 안심처럼 들릴까? 현장에 가면 '정책'이라는 심폐소생기를 단 채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무형유산을 자주 만난다. 무형유산 등재 이후 오히려 공동체 안의 어떤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생존전통"의 뜻

생존전통은 **하나의 질문이다.**

- 전통은 무엇을 보존해서 살아남는가?
- 전통은 무엇을 바꾸어서 살아남는가?
- 전통의 생존은 누가, 어떤 몸과 관계 속에서 감당하는가?

Norberg-Hodge(1991)가 전통을 "보존된 과거"가 아닌 **"도래하지 않은 미래"**로 본 것처럼, 이 연구는 전통을 살아남는 실천으로 바라본다.

사례 선정의 논리

세 지역을 동질적인 비교 사례로 전제하지 않는다. 유사한 역사적 압력(식민 지배·병합·국가 폭력)을 겪은 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통을 지속해 온 공동체들을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로 선정했다. 사례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생존전통의 작동 메커니즘과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세 지역의 비교는 하단 '세 지역 비교' 표에 정리했다.

> *이 연구는 보존정책을 부정하지 않는다. 생존전통은 보존의 반대말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비난하지 않지만, 그 선택이 항상 온전한 것도 아니다. 호기심과 애정의 눈으로 치열하고 냉철하게 관찰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태도다.*

보존 · PRESERVATION	⇄	생존 · SURVIVAL
기록 · 지정 · 복원 · 등재 · 교육 — 무형유산 등재라는 법제화와 시스템		법제화와 시스템 이후의 변형 · 선택 · 세대 교체 · 감각의 재배치 — 이 연구가 보는 곳

분석틀 — 세 겹의 단절

본 연구는 '경험의 멸종'(Pyle 1993; Soga & Gaston 2016; Rosen 2024)이라는 시각에서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감각적 단절** — 체화된 기예가 몸에서 몸으로 전해지지 못함 — Bourdieu의 체화된 자본
2. **환경적 단절** — 마을굿의 마당(제주), 왕국 해체로 사라진 궁정 무대(류큐), 강제 이주로 흩어진 부락의 의례 마당(대만) — 전승이 살아 있던 환경의 소실
3. **제도적 단절** — '보호'를 위한 제도가 살아있는 실천을 고정된 보존 대상으로 바꿈 — Smith의 '공인 유산 담론(AHD)'

세 단절은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을 이룬다. 제도가 해결책인 동시에 원인이라는 양면성, 그리고 각 공동체가 그것을 극복해 온 대안 — 이것이 이 연구가 기존 논의에 더하는 세 번째 차원이다.

◎ AIMS & OBJECTIVES · THIRD SECTOR 연결

본 연구는 무형유산 공동체를 **공동체 기반 조직(community-based organizations)**으로 개념화한다. ISTR이 정의하는 제3섹터는 공식 비영리조직뿐 아니라 공동체 조직과 자조·호혜 조직을 포괄하며, 무형유산 공동체 역시 이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존 연구가 재정 구조와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해 왔다면, 본 연구는 체화된 실천과 비공식 관계망 — 도제 관계, 의례 참여 구조, 세대 간 신뢰, **새로운 대안 탐구** — 이 공동체의 **조직적 탄력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 *공식 인정과 지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속가능성' 기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국가는 무형유산을 어떻게 지정하고, 그 이후 무엇을 하는가?
- 공동체는 제도 안팎에서 무엇을 계속 수행하는가?
- 몸의 지식은 조직적 지식으로 볼 수 있는가?

⊕ METHODOLOGY · 방법론

현장: 제주(2026.03.31–04.02) · 대만(2026.04 완료) · 류큐/오키나와(2026.05.29–06.02)

주요 인터뷰: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장(제주·30년 심방) · 金城真次 오키나와 국립극장(国立劇場おきなわ) 예술감독 · 시모야마 히사시(연극인) · 왕팅웨이 王廷瑋(부눈족 예술가·드라마터그)

시각 틀	Norberg-Hodge(1991): 전통 = "도래하지 않은 미래" / Rosen(2024): 경험의 멸종(extinction of experience)
현장 방법	Pink(2009): 감각 민족지학 — 몸·소리·움직임·장소·의례 기록
분석 개념	Bourdieu(1977): habitus — 몸에 새겨진 실천 감각
자료 방법	Vansina(1985): 구술전통 — 비문자 자료의 학술적 유효성
분석 방법	Charmaz(2014):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 일반화가 아닌 개념 생성

◷ 검증 연표 · TIMELINE

1683	대만 — 청(중국)의 대만 병합, 중국 지배의 시작
1879	류큐 — 류큐 처분: 왕국 해체, 일본 오키나와현으로 강제 편입
1895–1945	대만 — 일본 식민 통치, 원주민 강제 정착·동화정책
1945	류큐 — 오키나와 전투, 이후 27년 미군정
1947–1954	한국 제주 — 제주 4·3
1949	대만 — 국공내전 뒤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이전, 중국 본토와 분단
1972	류큐 — 구미오도리, 일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오키나와가 미군정을 끝내고 일본에 반환된 바로 그날(5.15), 류큐의 예술이 일본의 유산 체계로 편입됨
1980	한국 제주 — 칠머리당영등굿, 국가무형유산(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지정
2009	한국 제주 — 칠머리당영등굿,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0	류큐 — 구미오도리,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26	4COP — 세 지역 현장연구 (제주 3–4월 · 대만 4월 · 오키나와 5–6월)

현장 자료 · MATERIALS

5 심층 인터뷰 14 현장 영상 20 현장 사진 1 서면 Q&A

2 공연 참관 (영등송별제 · 류큐 예능)

◈ FINDINGS · 잠정 관찰

※현장 분석 진행 중 — 발화 인용은 인터뷰 전사본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한다

01 제도는 전통의 생존 조건이었지만, 생존을 결정한 것은 공동체의 대응 방식이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1980년 국가지정 이후 위상과 제약이 함께 왔고, 오키나와 쿠미오도리는 1972년 국가지정 이후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거의 없는 채 민간 계보가 무대를 이어왔으며, 대만 부눈 공동체는 정부(원주민위원회) 지원이 존재함에도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하고 교회 펀딩의 독립 운영을 선택했다.

> *"이게 딱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버리니까 그거 위주로만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죠"*
> —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장

02 전통의 전승은 보유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재생산되었다. 관객·단골·공동체 구성원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전통을 살아있게 하는 능동적 주체였다.

> *"전쟁 직후 전통을 지켜낸 것은 관객이었습니다"*
> — 오키나와 국립극장 예술감독

> *"일반 가정집 굿이 많아야 영등굿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무속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 —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장

03 체화된 지식은 문서가 아니라 공동의 실천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 전승되었다. 제주 심방은 걸으며 듣고 함께 자면서 배우고, 대만 원주민의 사냥꾼 학교(獵人學校)는 바람을 몸으로 느끼는 법을 가르친다.

> *"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해서 보여주는 것, 몸을 써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 — 오키나와 국립극장장

04 민간의 참여는 세 지역 모두에서 전통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체화된 실천 중심 공동체에는 어떤 지속가능성 기제가 필요한가. 이것이 이 연구가 Third Sector 이론에 던지는 질문이다.

> *"이거는 개인의 힘, 민간의 힘 — 하지만 무한하지 않으니까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 — 시모야마 히사시 (연극인·ACO Okinawa)

> *"여유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방법을 쓰는 거죠"*
> —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장

05 (가설) 제도와 공동체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통의 형태를 지키는 것이 제도와 시스템의 영역이라면, 그 의미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민간 — 제3섹터 — 의 영역이다. 제주에서는 단골 공동체가 의례의 수요를 만들고, 류큐에서는 가게와 학교의 일상이 감각을 품고, 대만에서는 교회와 부락 공동체가 자율성을 지킨다. 이 역할의 분담이 함께 작동할 때, 전통은 형태와 의미를 모두 지키며 살아남는다.

> *"형태를 잃어도 의미가 살아있었다"*
> — 4COP 현장 합평

연구의 한계 · LIMITATIONS

단기 현장조사 기반 · 일부 인터뷰는 통역 매개 · 인터뷰 전사본의 참여자 검증(member checking) 진행 중 ·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라 근거이론(Charmaz)에 기반한 개념 생성

다음 단계 · WHAT'S NEXT

인터뷰 전사본 검증 완료 · 세 지역 연구 참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공동 세미나(2026.08) · 사진·영상·전사를 포함한 다국어 웹 아카이브 구축 · 호주·미국 등 유사한 역사적 맥락의 지역으로 비교를 확장해 '생존전통' 개념의 적용 가능성 검토

≡ 세 지역 비교 · COMPARATIVE ANALYSIS

분석 축	한국 제주 (Jeju, Korea)	일본 류큐·오키나와 (Ryukyu/Okinawa, Japan)	대만 원주민 (Taiwan Indigenous)
주요 전통	칠머리당영등굿 (UNESCO ICH 2009)	구미오도리/組踊 (UNESCO ICH 2010) · 류큐 무용	부눈족의 제의와 노래 — 파시부트부트(8성부 합창 기도송) 등. UNESCO 비회원국, 대만 자체 문화유산 체계
역사적 압력	제주 4·3 (1947–1954), 인구 약 10% 희생	류큐 처분·왕국 해체(1879) · 오키나와 전투(1945) · 미군정 27년	청(중국)의 병합(1683) 이후 중국 지배 → 일본 식민 통치(1895–1945) → 중화민국 이전(1949)으로 중국 본토와 분단 · 원주민 강제 정착·동화정책
전승 주체	보유자 중심 · 단골 — 굿의 수요를 만드는 신앙 공동체(선주·어부 등)	계보·사제 관계, 오키나와 국립극장(国立劇場おきなわ) · 궁중 예인의 민간화	장로·청년·문화운동가 · 드라마터그 = 연구와 상담으로 민족적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적 재해석을 조율
제도화의 형태	1980년 국가무형유산 지정 → 무속 문화의 위상 상승과 "영등굿"만의 박제화가 함께 진행됨	1972년 국가무형유산 지정 → 이후 국가 지원 부재, 류큐 무용 교실 50% 이상 감소	원주민위원회 등 정부 지원 제도 존재 → 부눈 공동체는 "지원을 받으면 정부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거부, 교회 펀딩의 독립 운영 선택
생존 방식	전승지원금 + 자체 수익 저축으로 자생	민간이 전통 악기와 노래를 구전으로 이어 일상화 — 가게와 학교의 삶 속으로	마을 안에서 삶=일=예술=교육을 통합해 자급 운영 · 전통의 규범은 법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도덕·윤리가 결정
핵심 질문	문화 정책 vs 민간 영역 노력 — 전승과 감각에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가?	관광화와 일상 경험 — 기억 없이 복원한 전통은 무엇을 전승하는가?	"전통이란 땅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왕팅웨이) — 등재되지 않은 전통도 약한 전통이 아니다

세 지역의 차이는 전통의 종류가 아니라, 전승 주체가 제도와 민간 영역 사이에서 맺는 관계에서 드러난다. 제주는 보유자 제도와 생활세계의 겹침 속에서, 오키나와(류큐 문화)는 지정 이후의 지원 공백과 민간 계보 속에서, 대만은 등재 바깥의 자율성 협상 속에서 — 각각 다른 생존의 형태를 보인다.

□ KEY REFERENCES

Norberg-Hodge, H. (1991).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

Rosen, C. (2024).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Being Human in a Disembodied World*. W. W. Norton.

Pink, S. (2009). *Doing Sensory Ethnography*. SAGE.

Vansina, J. (1985). *Oral Tradition as History*.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 ed.). SAGE.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P.

UNESCO ICH: 칠머리당영등굿(2009) · 구미오도리(2010)

survivingtraditions.com